



보도시점 2024. 1. 29.(월) 09:00 배포 2024. 1. 29.(월) 09:00

농어업위,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떼다

-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1.23)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월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치유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 등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어업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자로는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장, 이애경 단국대학교 교수, 홍장원 해양수산개발원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최정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 김남훈 (주)그린에코 대표, 지호선 스마트 치유산업포럼 부원장, 이성호 산림청 산림치유과 사무관이 포함됐다.

주제발표 중 치유농업 분야는 최소영 과장이 중앙정부 관점에서 치유농업법과 관련한 제도·연구·거버넌스 현황과 지원 정책 소개하였고, 이애경 교수는 전략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해양치유 분야는 홍장원 연구위원이 해양치유자원법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과 동향, 관련 사례, 사업을 소개했다. 산림치유 분야는 최정호 센터장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도, 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 등 논의했다. 치유산업 분야는 김남훈 대표가 일본에서 사업화했던 치유프로그램 운영사례를 공유하였고, 지호선 부원장은 국내에서 추진한 사업화 사례와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토론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 간 협력과 융복합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민간 중심의 치유산업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지금은 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유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위에서 치유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어업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올해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농어촌정책팀	책임자	팀 장	엄성준 (02-6260-1221)
		담당자	사무관	임정우 (02-6260-1225)